



4면

"보고싶어요"... 교육감 앞으로 보내진 편지

전주매일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음 8월 18일) 제30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승강장으로 들어서는 귀경 열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전주역에 귀경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이에 많은 귀경객들이 열차가 도착한 것에 반가워 하고 있다.

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 '착착'

내년 1월 재가동 맞춰 연말까지 300명 인력양성 채용 지원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인건비·인센티브 지급 등 고용지원
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중소형·친환경 선박 중심 체질 개선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내년 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으려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 후 5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올해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력양성, 고용보조, 후생복지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자·퇴직자·자격증 소지자 등 '기초 인력 유입'과 '신규 인력양성'이라는 두드러진 전략으로 지난 7월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수급(올해 말 300여명, 내년 말 900여명)에 본격 돌입했다.

먼저, 경력자 등의 기존 인력에게는 조선업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채용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훈련수당 80만원 및 취업장려금(229명) 120만원 등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조선업 경력자 없는 신규인력은 기본교육부터 진행되며 50만원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기본교육 수료 후 종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전원 채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난 7월부터 TV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시작으로 지난달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 '전북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도 가졌다.

특히, 군산사내금전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는 군산 조선소 첫 채용설명회에 걸맞게 500여 명 인파의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전북도는 적극적인 조선업 구인난 속에서도 올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들의 목표인원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이후 가동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인력 양성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초기에 사내협력사의 대규모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안정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사내협력사와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만 39세 이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만 40~60세)은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내협력사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매월 최대 16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분기별

25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사내협력사가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매월 최대 7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 후 분기별 5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먼저 기숙사(현대중공업 오식관)와 숙소(월 10만원, 1년간),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유아교육지원금(연 180만원) 등 자녀학자금, 설·추석 명절보너스(50만원), 휴가비(50만원), 성과급(12월)도 지급하며 본인, 자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사내협력사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현대중공업 직업 생산직 전환의 기회도 부여한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지역경제 회복의 희망의 씨앗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기회인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전북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미래친환경 조선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조선소의 차질 없는 재가동 지원으로 지역 조선업 재건을 꾀하는 한편, 중소형·특수선/친환경 선박 중심의 지속가능한 조선 생태계 조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ITS 구축 공모 선정

(지능형 교통체계)

전주시, 5년 연속... 2024년까지 40억 투입
장기적인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등 추진

전주시가 하천 범람시 언더패스를 차단하는 지능형 하천수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5년 연속으로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체계의 과학화와 자동차·교통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CCTV 영상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트리아를 구현하고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류 변화를 진단하고 사고·혼잡 예방을 분석하는 지능형 신호운영 플랫폼 구축 △하천 범람시 언더패스 차단 및 차량침수 방지를 위한 지능형 하천수위 감시시스템을 교통정보센터에 연계 조정전 대기행렬 영상분석 교통량 수집으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현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신호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전주시 도시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ITS 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30억 원을 활용해 현재 교통정보 영상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신호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교통정보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과 신호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부 교통 소통 향상과 정체 시간 절감은 물론이고 긴급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 ITS 도약을 위한 기반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에 지난 2019년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5년 연속으로 선정돼 총 8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 ITS 노후 장비 고도화사업(2019년)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49개소와 감응신호 구축(2020년)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37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교통정보전광판 설치·운영(2021년) △긴급차량 우선신호 및 스마트 교차로 확대 구축사업(2022년) 등이 있다. /김재훈 기자

소부장 펀드 참여 기업에 투자금 신속 지원

도, 하반기 추경예산 7억5000만원 편성... 반기 앞당겨 출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소부장 펀드 참여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12일 밝혔다.

소부장 펀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소부장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 조합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유행, 미국·EU 등과 중국·러시아 간 무역전쟁 지속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

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전북도와 소부장 강소기업인 (주)나텍 등이 출자했다. 2021년도 상반기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공모 선정됐고, 자금은 3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업무 집행하는 운용(KLS벤처투자)에서 투자 대상기업(10개 기업)을 조기 발굴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투자금을 반기씩 앞당겨 집행하기

로 결정했다. 이에 도비 7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출자한다.

현재까지(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투자액 12개사 111억 중 47%인 41억원(도 출자금 27억5,000만원)이 전북기업 5개사에 투자됐다. 조기 집행에 따라 2024년까지였던 투자계획을 2023년 도까지 앞당길 전망이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회수 기간(2024~28년)을 거쳐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펀드투자 활성화로 도내 기업경쟁력 강화와 외부 의존형 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진짜 맛집?

리뷰가 아닌 빅데이터로 말한다

Tmap 길안내 데이터, 전주시 1위 음식점은?

음식의 고장 전주·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Tmap 길안내 결과, 1위 음식점은 어디일까?
전주 중화산동 소재 '현대옥본점'입니다.
전주 현지인에게도 1위이고, 외지인에게도 1위입니다.

전주 소재 전국적 명성의
비빔밥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칼국수 등 모든 음식점들을 망라하여
그냥 1등이 아닌 월등히 앞선 1등입니다.

Tmap 길안내 데이터,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현지 맛집은?

2022. 7. 기준 Tmap 길안내 빅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업소는 1위 군산이성당, 2위 현대옥본점이라고."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 2022년 8월 자료]

저희 현대옥본점과 전북권 40여 현대옥가맹점은 자만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현대옥
JONJU HYUNDAOK
Korean Authentic Food